

중동발 고유가 충격...소비자물가 2년 만에 3%대 급등

광주 3.1%·전남 3.5% 상승
 석유류 급등에 물가압박 심화
 과일·채소·수산물 안정에도
 공업제품·서비스 물가 경중
 전국도 2년 2개월만에 3%대

5월 소비자물가 동향 (전년동월대비)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2년 만에 3%대 상승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의 영향이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호남지방데이터센터가 발표한 '2026년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1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며 전월 상승률(2.3%)을 0.8%p 웃돌았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 3.2% 상승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상승 폭으로는 지난 2023년 8월(1.3%p)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컸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식품과 식품 이외 품목이 각각 1.9%, 4.4%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1.3% 하락했다. 신선어개와 신선과실은 각각 6.4%, 1.2% 상승했지만 신선채소(-12.5%)의 가격이 크게 내리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배추(-26.2%), 국산쇠고기(-3.1%), 오이(-35.4%) 등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지만 돼지고기

(9.1%), 쌀(14.0%), 사과(10.9%) 등의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휘발유(23.6%), 경유(34.2%), 컴퓨터(19.0%) 등이 크게 올라가면서 4.5% 상승했다. 반면 생리대(-10.0%), 떡(-6.7%), 냉동식품(-4.7%)의 가격이 떨어졌다.
 서비스 물가는 2.6% 상승했다.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제항공료(33.5%)와 해외단체여행비(26.3%) 등이 크게 올랐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1.2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 전월(2.7%)보다 0.8%p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24년 3월

(3.6%)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또 3%대 상승을 기록한 것은 2024년 4월 3.2% 이후 처음이다. 상승 폭으로는 광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3년 8월(1.4%p)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식품은 2.4%, 식품 이외 품목은 5.1% 각각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1% 상승했다. 신선어개와 신선과실은 각각 0.4%, 0.7% 상승하고 신선채소는 1.1% 하락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했다. 돼지고기(9.8%)와 국산쇠고기(8.0%), 쌀(14.2%) 가격이 크게 오르고 오징어(-13.2%), 배

(-21.0%), 무(-24.1%)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 상승했다. 휘발유(23.3%), 경유(34.1%), 등유(21.9%)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서비스 물가는 국제항공료(33.5%), 보험서비스료(13.4%), 승용차임차료(25.7%) 등이 오르면서 2.5% 상승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3%대를 기록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3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물가지수를 끌어 올렸다.
 생활물가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체감 물가 상승 폭도 컸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이는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3%대에 도달한 것도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아파트 경비실·관리사무소에 '햇빛 복지' 후원

신협중앙회 '어부바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선정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근무환경 개선·탄소중립

광주문화신협과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손잡고 지역 아파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의 근무환경 개선에 나선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에너지 전환 인식까지 높여준다는 구상이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구소에서 '2026년 협동조합 상생 성장 어부바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전국 11개 협동조합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협동조합 상생 성장 어부바 프로젝트'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신협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신협의 대표 사회연대경제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130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경쟁을 벌였으며, 심사를 거쳐 1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문화신협과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취약계층(아파트 경비실) 미니태양광 발전 설치 지원 및 에너지 전환 교육' 사업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아파트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냉·난방기기 운영에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비실은 구조적으로 냉·난방 여건이 열악한 곳이 적지 않다. 여름철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으로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의 성격도



신협중앙회는 최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구소에서 '2026년 협동조합 상생 성장 어부바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전국 11개 협동조합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갖는다.
 사업은 시설 설치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태양광 발전 활용법과 재생에너지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는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신협중앙회는 사업비 지원과 함께 협동조합과

지역 신협을 1대 1로 연계해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회계 프로그램인 '신협 알마에요'와 관리 지원 플랫폼 '라이프온' 등을 제공해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 강화도 지원한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문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주체"라며 "지역 신협과 협동조합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 상생 성장 어부바 프로젝트'는 2013년 신협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됐다. 2021년부터 정례 사업으로 운영되며 협동조합의 자립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산림연구원은 2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발굴과 산업화에 공동으로 나선다.

전남 산림·도서·연안 생물자원, 그린바이오 산업화 '시동'

산림연구원-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협약...기능성 소재 발굴·제품화 추진

전남의 풍부한 산림·도서·연안 생물자원을 활용해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
 전남산림연구원은 2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발굴과 산업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에 분포한 산림·도서·연안 야생생물자원의 유용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국산 그린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품·화장품·의약·향장산업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서 국산 원료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은 섬과 연안, 난대 산림 등 다양한 생태환

경을 바탕으로 생물자원이 풍부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원료 발굴에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도서·연안·산림 생물자원의 유용성 발굴부터 기능성 평가, 원료 생산기술 개발, 제품화, 홍보·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도서·연안·산림 야생생물자원의 유용 가치 발굴 △그린바이오 소재 기능성 평가 및 제품화 △표준 제배법 및 대량증식 기술 개발 △공공 연구 및 홍보·마케팅 △지역 산업 활성화와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이다.
 전남산림연구원은 그동안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발굴과 대량증식 기술 개발, 표준 제배기 기술 확립, 기업 연계 제품화 연구를 추진해 왔

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호남권 도서·연안 생물자원 조사와 유용성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연구 교류를 넘어 연구 성과를 산업 현장과 연계하고 지역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병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생물연구본부장은 "도서·연안 생물자원과 산림생물자원을 연계한 연구 협력은 호남권 생물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기반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와 국산 바이오 소재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은 "전남이 보유한 풍부한 생물자원을 국산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고 이를 산업화해 지역 임업인 소득 증대와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bul@gwangnam.co.kr

조선업 훈풍...전남 서남부 기업심리 살아나

제조·비제조업 동반 개선...내수 여전히 '발목'

전남 서남부지역 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주가 늘고 비제조업 경기까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 심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인건비 상승 부담은 여전히 지역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최근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등 전남 서남부 9개 시·군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9.8로 전월 대비 4.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100.8)을 9p나 웃도는 수준으로, 전남 서남부 제조업 심리가 전국보다 훨씬 낙관적임을 보여준다. 6월 전망 CBSI도 112.2로 5.4p 추가 상승이 예상돼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비제조업 심리도 개선됐다. 제조업 심리가 109.8로 전월 대비 4.3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100.8)을 9p나 웃도는 수준으로, 전남 서남부 제조업 심리가 전국보다 훨씬 낙관적임을 보여준다. 6월 전망 CBSI도 112.2로 5.4p 추가 상승이 예상돼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세부 지표를 들여다보면 매출BSI가 전월 대비 16p 급등한 92를 기록했고, 생산BSI도 15p 오른 91을 나타냈다. 신규수주BSI 역시 10p 상승한 90으로 집계됐으며 6월 전망치는 99에 달해 기준치(100)에 근접한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의 경우 인력난·인건비 상승이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제조업 인력사정BSI는 전월 대비 7p 하락한 78을 기록해 인력 부족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원자재 구입가격BSI는 138로 4p 추가 상승하며 원가 부담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제조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경영 애로로 꼽은 비중이 전월 33.8%에서 22.1%로 11.7p 큰 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가격 부담에 대한 적응이 이뤄지고 있거나, 공급망 여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서남부지역 기업경기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호조에 힘입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6월 제조업 전망 CBSI가 112.2로 예측된 만큼 단기 낙관론도 유효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서남부지역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14개 업체가 응답해 85.6%의 회수율을 기록하며 개선을 주도했고, 업황BSI도 9p 상승한 65를

나타냈다.
 그러나 비제조업의 반등에는 한계도 분명하다. 업황BSI 절대 수준(65)은 전국 평균(74)을 크게 하회하는 데다, 매출BSI도 64에 그쳐 기준치(100)와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6월 전망 CBSI는 99.5로 장기평균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반등이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이 꼽은 경영 애로사항에서는 내수부진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비제조업에서는 내수부진을 최대 애로로 꼽은 응답 비중이 29.5%로 가장 높았고, 전월 대비 2.8p 더 늘었다. 제조업에서도 내수부진 응답 비중이 16.2%로 전월보다 7.4p 나 급증했다.
 제조업의 경우 인력난·인건비 상승이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제조업 인력사정BSI는 전월 대비 7p 하락한 78을 기록해 인력 부족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원자재 구입가격BSI는 138로 4p 추가 상승하며 원가 부담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제조업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경영 애로로 꼽은 비중이 전월 33.8%에서 22.1%로 11.7p 큰 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가격 부담에 대한 적응이 이뤄지고 있거나, 공급망 여건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 서남부지역 기업경기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호조에 힘입어 전국 평균을 웃도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6월 제조업 전망 CBSI가 112.2로 예측된 만큼 단기 낙관론도 유효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남 서남부지역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14개 업체가 응답해 85.6%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황해은 기자 nab@gjdream.com